

초등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정서표현성, 기본심리욕구 및 학교행복감 간의 관계

유 신 복

손 원 숙[†]

경북대학교 교육학과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정서표현성, 기본심리욕구 및 학교행복감 간의 관계를 검증하는 것으로 이를 위하여 크게 두 가지의 방법론이 적용되었다. 먼저 어머니의 정서표현성과 학교행복감 간의 관계에서 자율성, 유능성 및 관계성 등 기본심리욕구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하였다. 또한 군집분석을 통한 정서표현성의 프로파일을 도출하고, 정서표현성 프로파일별 기본심리욕구 및 학교행복감의 차이를 탐색하였다. 본 연구는 D광역시 및 K지역에 위치한 8개 초등학교 5, 6 학년 총 373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변인 측정을 위하여 자기보고식 형태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첫째, 지각된 어머니의 긍정 정서표현성은 자녀의 기본심리욕구뿐 아니라 학교행복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인 직접 효과를 보였다. 반면 어머니의 부정 정서표현성은 자율성 및 학교행복감에는 부적인 직접 효과를 보였으나, 자녀의 유능성 및 관계성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둘째, 지각된 어머니의 긍정 또는 부정 정서표현성과 학교행복감 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자율성-관계성, 자율성-유능성 등 이중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유능성 및 관계성은 긍정 정서표현성과 학교행복감의 관계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단순매개효과를 보였다. 셋째, 지각된 어머니의 정서표현성 프로파일은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도출되었는데, 긍정과 부정 정서표현성이 모두 평균 이상인 집단, 모두 낮은 집단, 또한 둘 중 하나의 정서표현성이 높은 집단 등이었다. 이 중 긍정과 부정 정서표현성이 균형을 이루거나 긍정 정서표현성만 높은 프로파일의 경우가 다른 프로파일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기본심리욕구와 학교행복감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부정 정서표현성의 효과와 더불어서 보다 적응적인 형태의 정서표현성 유형을 탐색하기 위한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어머니의 정서표현성,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학교행복감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손원숙,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370
E-mail : wsohn@knu.ac.kr

입시와 경쟁 위주의 교육환경에서 우리 아이들은 학교생활이 행복한가? 국제 교육성취도 평가협회(IEA)가 세계 50개국 60만명(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1 수학·과학 성취도 추이 변화 국제 비교연구(Trends in International Mathematics and Science Study: TIMSS)” 결과, 우리나라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의 과학 성취도는 세계 1위, 수학 성취도는 세계 2위를 기록했다. 반면에 흥미도 평가에서 우리나라 초등학생은 조사 대상 50개 국가 중 과학에서 48위, 수학은 50위를 차지하였다(김수진 외, 2012). 이는 ‘우리나라 학생들은 공부에 잘하나 학교에서 즐겁지 않다’라는 결과로 우리나라 학생들의 교과 흥미 및 행복감 향상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최근 학생이 지각한 행복의 수준에 관한 보고(박영신, 김의철, 한기혜, 박선영, 2012)에 의하면 청소년은 가정, 학교 및 여가 생활에서 느끼는 행복 가운데 학교에서 느끼는 행복감의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의 낮은 행복감은 우울, 게임 중독, 학교폭력, 비행 등의 일탈행위로 이어진다는 측면(김아영, 이명희, 2008; Ainley, 1991; Chen & Li, 2000; Mcknight, Huebner, & Suldo 2002; Reyes & Jason, 1993; Suldo & Huebner, 2004)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의 행복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 마련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청소년의 학교행복감은 장기적으로 다른 사회 영역에서의 적응과 관련성이 있다고 밝혀지고 있어 그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Entwisle & Hayduk, 1988).

현재까지 진행된 대부분의 행복감 관련 연구들은 학교라는 특수한 상황보다는 일반적인 안녕감 및 행복감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행복감 가운데 학교라는 특정한 맥락과

상황을 고려하여 평가하는 심리적인 만족감의 상태를 ‘학교행복감’이라고 구분하여 정의할 수 있다(김종백, 김태은, 2008). 즉, 학교행복감이란 학교에서 느끼는 행복감을 의미하며 하위요인에는 친구관계, 교사관계, 환경만족, 자기효능감, 학습활동 즐거움, 심리적 안정으로 구성되어 있다(김종백, 김태은, 2008). 이러한 학교행복감은 청소년들의 삶의 질에 중요한 측면으로 여겨지나,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 국가의 교육 변화나 학교 개혁은 학업성취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어 행복감과 같은 정서적인 측면에는 관심을 두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Verkuyten & Thijs, 2002). 특히 우리나라 학생들의 경우 정규 수업뿐만 아니라 방과 후 활동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대다수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 것을 고려하였을 때, 학생이 학교와 관련하여 느끼는 행복감은 어떠한지 그리고 학교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탐색해 보는 것은 교육적 가치가 있을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의 학교행복감에 초점을 두고자 하는데, 이러한 연구대상은 발달 단계상 아동과 청소년기의 경계에 위치한다는 점과 아동이지만 본인의 행복감을 평가할 수 있는 충분한 인지적 능력을 소유하였다는 점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행복감의 영향요인으로는 사회인구학적 요인(성별, 연령, 학력, 직업 등)(김명소 외, 2003; Campbell, 1981), 사회 관계적 요인(부모-자녀관계, 양육태도, 부모 애착 및 친밀감, 가족응집성 등)(송정화, 박병기, 임신일, 2012; 이정화, 2005; 조한익, 2011), 및 개인의 심리적 요인(자기효능감, 외향성, 낙관적 성향, 자기통제감)(이수진, 2011; 이정화, 2005; Cheng & Furnham, 2001; Hills & Argyle, 2001; Diener,

1984; Diener, Suh, Lucas, & Smith, 1999; Francis, Brown, Lester, & Philipchalk, 1998)등으로 구분하여 선행 연구가 진행되었다. 행복감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주로 일반적인 행복감(global happiness)을 다루고 있고, 현재까지 학교행복감에 집중하여 그 영향요인을 탐색하는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핀란드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행복감 연구(Uusitalo-Malmivaara, 2012)에 따르면, 일반적인 행복감과 학교행복감은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었으며, 특히 가족 구성원이나 의미 있는 타인과의 관계가 학교행복감의 주요한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특목고를 대상으로 한 국내 연구(송영명, 2011)에서는 개인의 심리적 특성인 자아탄력성 및 학업적 유능감과 함께 부모-자녀관계가 학교행복감에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탐색되었다. 이들 연구에서는 공통적으로 사회적 관계 요인 중 부모와의 관계 변인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주양육자에 해당하며, 아버지 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풍부한 정서표현을 하는 것(Brody, 1993; 유은희, 임미옥, 2006)으로 알려진 어머니와의 관계 변인은 자녀의 행복감에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부모-자녀관계 변인으로 주로 어머니의 양육태도나 애착, 친밀감 수준, 의사소통 등이 탐색되었는데, 이 중 부모를 포함한 가족의 정서 표현 정도는 유아 및 아동의 정서지능 및 사회적 유능성, 또래 관계 등에 영향력 있는 변인(Denham, 1998; Saarni, 1999)으로 알려져 있다. 정서표현성(emotional expressiveness)이란 정서와 관련이 있는 언어적 혹은 비언어적인 표현을 나타낼 때의 지속적인 패턴이나 스타일로 정의(Halberstadt, Cassidy, Stifter, Parke, & Fox, 1995)

된다. 정서표현성의 중요성을 밝힌 관련 선행 연구를 고찰해 볼 때, 주로 아동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어머니의 정서표현성은 자녀의 심리, 사회적 특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Bronstein, Fitzgerald, Briones, Pieniadz, & D'Ari). 또한 아동들은 성숙하면서 더 다양한 정서를 경험하고 표출할 때, 타인의 정서를 더 잘 인식하게 되고, 타인과 자신이 표출하는 정서의 원인과 기능을 적절하게 해석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행복감과 같은 개인의 내적 기능이 강화된다(Cassidy, Parke, Butkowski, & Braungart, 1992; Halberstadt, 1991)고 한다. 부모의 긍정 및 부정적인 정서표현이 학대받은 아동의 취학 후 학교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연구 결과(Haskett, Stelter, Proffit, & Nice, 2012)등을 고려할 때, 어머니의 정서표현성은 자녀의 학교행복감을 예측할 수 있는 또 다른 부모-자녀 관계 변인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부모 변인 이외에 본인의 기본심리욕구인 자율성, 관계성, 유능성이 학교행복감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자기결정성이론(Deci & Ryan, 2000)에 따르면 기본심리욕구가 충족되면 내재적 동기 발생을 촉진하여 궁극적으로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켜 주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자율성의 욕구가 충족되면 전반적인 자존감이 높아지고, 학교에서 심리적으로 잘 적응하며 학업의 집중이나 능동적인 정보 처리 및 만족도 등의 긍정적인 성과가 나타난다(Vallerand, Fortier, & Guay, 1997). 또한 유능성은 사회적인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자신이 유능하다고 느끼는 자신감을 의미하며, 관계성은 자신이 소속된 사회에서 소속감과 배려감을 느낄 때 생기는 만족감으로 정의된

다(Baumeister & Leary, 1995; Deci & Ryan, 2000). 즉, 또래와의 관계가 좋은 아동은 학교 생활이나 교실에서의 상황을 훨씬 더 즐길 수 있고, 궁극적으로 삶에 더 큰 만족감을 보이거나, 사회적 상황에서 관계성 욕구 충족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개인의 심리적 안녕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아영, 이명희, 2008; Aderson, Manoogian, & Reznick, 1976; Osterman, 2000; Patrick, Knee, Canevello, & Lonsbary, 2007). 따라서 자율성, 유능성 및 관계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기본심리욕구가 충족되면 자존감, 자신감 및 만족감 등이 향상되어 실제 동기나 수행을 강화시켜 줌으로써 궁극적으로 학교적응 및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Deci et al., 1991; Domagała-Zyśk, 2006; Spera, 2005). 기본심리욕구와 주관적 안녕감 또는 행복감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한소영, 신희천, 2009)에 따르면, 대학생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의 충족이 유의한 매개효과를 가진다고 보고되었다. 또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행복감 연구(Ryan & Connell, 1989; Veenhoven & Ehrhardt, 1995)에서도 기본심리욕구의 충족이 아동의 행복감 및 학교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한편 Deci와 Ryan(2000)의 자기결정성 이론에 따르면 이 세 가지의 기본심리욕구 충족은 동시에 이루어 진다기 보다는 자율성 지각이 선행된 후 유능성 및 관계성 충족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모형을 제안하고 있다. 즉, 자율성은 선택이나 의사결정의 유연성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조절해 나가는 것으로 기본심리욕구 이론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간주된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선행 연구(김아영 외,

2007; 전성희, 신미, 유미숙, 2011; Vallerand, Fortier, & Guay, 1997)에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김은주(2007)의 연구에서도 자율성을 선행하여 관계성, 유능성을 매개로 부모 자녀관계가 대학 신입생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도 기본심리욕구를 자율성-관계성과 자율성-유능성 등과 같은 위계적인 관계 구조를 설정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요약하자면,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경계에 위치한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의 학교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어머니의 정서표현성과 기본심리욕구를 설정하고, 이 세 변인 간의 관련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어머니의 정서표현성은 자녀가 지각한 정도로 측정하고자 하는데, 이는 정서는 개인적, 주관적인 개념으로 화나 즐거움 등과 정서에 대한 반응 및 이해에 존재하는 개인차(Bradburn, 1969; Larsen, 1984; Patterson, 1980)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인이 주관적으로 지각한 어머니의 정서표현성이 본인의 심리적 기능에 보다 의미 있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에서는 어머니의 정서적인 지지 및 격려를 나타내는 정서표현성은 아동의 내재적 동기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아동의 자기결정성을 형성하는 과정인 내면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는 자율성, 유능성 및 관계성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심리적 적응 및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였다(전성희, 신미, 유미숙, 2011; Gottfried, Fleming, & Gottfried, 1994; Roth, Assor, Niemiec, Ryan & Deci, 2009; Vallerand et al., 1992). 추가

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정서표현성의 하위 구인의 독립된 특성을 고려하여, 군집분석을 통한 다양한 정서표현성의 프로파일을 도출하고, 프로파일별 기본심리욕구와 행복감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초등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정서표현성, 기본심리욕구 및 학교행복감 간의 구조적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초등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정서표현성과 학교행복감의 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초등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정서표현성의 군집유형에 따른 기본심리욕구 및 학교행복감의 차이는 어떠한가?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D광역시 및 K지역에 위치한 8개 초등학교 5, 6학년 총 373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설문조사는 2012년 9월부터 10월까지 실시되었다. 학년 및 성별에 따른 연구대상 분포는 표 1과 같다.

표 1. 학년 및 성별에 따른 연구대상 분포(%)

	남자	여자	전체
5학년	82(22.0)	93(24.9)	175(46.9)
6학년	107(28.7)	91(24.4)	198(53.1)
전체	189(50.7)	184(49.3)	373(100.0)

측정도구

어머니의 정서표현성 검사

초등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정서표현성은 Halberstadt 외(1995)의 「가정에서의 자기표현 질문지(Self-Expressiveness in Family Questionnaire: SEFQ)」를 이진희, 이옥경, 손원숙(2012)의 연구에서 수정한 한국어판 SEFQ 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문항 응답양식은 리커트식 5점 척도이며, 총 40개 문항은 긍정 정서표현 23 문항과 부정 정서표현 1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긍정 정서표현은 '누군가 일을 잘 했을 때 칭찬한다.'와 같이 긍정적 정서표현을 하는 문항이고, 부정 정서표현은 '다른 사람의 부주의함에 화를 낸다.'와 같이 부정적 정서표현을 하는 문항이 포함된다. 각 하위척도 점수가 모두 높을수록 해당 정서표현을 자주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본 연구 자료에 따른 척도의 하위영역별 신뢰도(Cronbach α)는 긍정 정서표현 .92, 부정 정서표현 .84로 나타났다.

기본심리욕구 검사

Deci와 Ryan(2000)이 개발한 기본심리욕구척도에 근거하여 김아영, 이명희(2008)가 한국 청소년들을 위해 개발하고 타당화한 한국형 기본심리욕구척도를 사용하여 초등학생의 기본심리욕구를 측정하였다. 이 검사는 3개 하위요인인 자율성, 유능성 및 관계성의 각 6문항씩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었고, 리커트식 6점 척도의 응답양식을 갖고 있다. 이 척도에서 자율성이란 개인이 행동의 원천이나 지각된 근원이 되는 것, 즉 개인의 행동하는 원인이 자신의 흥미와 통합된 가치로부터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유능성은 사회적 환경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에서 능력이 있다고

느끼고, 그런 능력을 표현하고 실행할 기회를 경험하는 것을 의미이다.

그리고 관계성은 다른 사람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을 돌보거나 돌봄을 받는다고 여겨 개인이나 단체에 소속되어 있다고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Deci & Ryan, 1985). 본 연구에서 분석된 하위영역별 신뢰도(Cronbach α)는 자율성 .82, 유능성 .90, 관계성 .84이다.

학교행복감 검사

학교행복감 측정을 위하여 김종백과 김태은(2008)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총 6개의 하위요인 즉, 친구관계, 교사관계, 자기효능감, 학습활동 즐거움, 환경만족, 심리적 안정으로 이루어져 있고, 영역별 각 4개 문항씩 총 2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척도문항의 응답양식은 리커트식 5점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6개의 하위요인 중 심리적 안정을 제외한 5개 하위요인만을 분석에 포함하였고, 하위영역별 신뢰도(Cronbach α)는 친구관계 .78, 교사관계 .90, 자기효능감 .81, 학습활동 즐거움 .83, 환경만족 .80으로 나타났다.

연구 모형

본 연구는 자기결정성 이론의 틀에서 기본심리욕구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인 요인인 어머니의 정서표현성을 선정하고, 또한 기본심리욕구가 학교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연구모형을 그림 1과 같이 설정하였다. 기본심리욕구의 세 하위요인은 선행연구(김은주, 2007; 전성희, 신미, 유미숙, 2011; Vallerland, Forrier, & Guay, 1997) 결과를 바탕으로 자율성이 선행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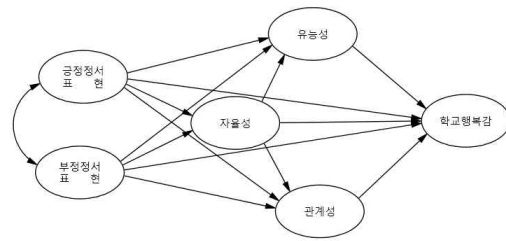


그림 1. 연구 모형

여 유능성과 관계성에 영향을 주는 위계적인 구조를 고려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정서표현성과 기본심리욕구는 학교행복감에 모두 직접적인 효과를 미치는 경로를 가정하였다. 한편 자율성의 영향력을 통제한 뒤 발생하는 유능성과 관계성의 설명오차 간에는 공분산을 설정하였다.

분석 방법 및 절차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8.0과 AMOS 18.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자료처리 방법은 우선 각 검사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α 값으로 산출했으며, 지각된 어머니의 정서표현성, 자율성, 관계성 및 유능성과 학교행복감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정서표현성, 자율성, 관계성 및 유능성과 학교행복감 간의 구조적인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구조 방정식 모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모형의 계수 추정방식은 최대우도 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ML)을 사용하였다. 각 모형과 자료간의 합치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카이제곱(χ^2)을 기본적으로 고려하였으나, 이는 표본크기에 민감하다는 특징이 있어 기타 몇 가지의 적합도 지수도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는 절대적 적합도 지수에 해당하는 RMSEA(.80 이하)와 상대적 적합도 지수에 해당하는 TLI (.90이상), CFI(.90이상)가 고려되었다(Brown & Cudeck, 1993; Kline, 2010). 한편 어머니의 정서 표현성과 학교행복감 사이에서 자율성, 유능성 및 관계성의 단일 또는 이중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하여 Sobel의 표준오차¹⁾ 추정공식(Preacher & Hayes, 2004)을 활용하였다. 한편 어머니의 정서표현성의 프로파일을 도출하기 위해 Hair와 Black(2000)이 제안한 2단계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실시하였고, 프로파일에 따른 심리욕구와 학교행복감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일원변량분석과 Scheffé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결 과

주요변인의 기술 통계치

먼저 어머니의 정서표현성과 초등학생의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및 학교행복감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어머니의 정서표현성과 초등학생의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및 학교행복감 간에는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척도별 하위요인들 간의 상관을 살펴보면, 긍정 정서표현은 기본심리욕구 및 학교행복감과의 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 부정 정서표현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 정서표현성과 기본심리욕구의 유능성 및 학교행복감의 하위변인인 자기효능감과 각각 가장 높은 정적 상

관($r=.511$, $r=.487$)이 나타났다. 반면 부정 정서표현은 기본심리욕구의 자율성과 가장 높은 부적 상관($r=-.331$)이, 학교행복감의 학습활동 즐거움과 가장 높은 부적 상관($r=-.302$)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본심리욕구의 세 개 요인과 학교행복감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이 중 자율성과 교사관계가 가장 낮은 정적 상관($r=.283$)이 나타났으며, 유능성과 자기효능감이 가장 높은 정적 상관($r=.739$)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주요변인의 평균 경향을 살펴보면, 어머니의 정서표현성은 긍정 정서표현이 부정 정서표현보다는 좀 더 높게 지각되었고, 기본심리욕구 중 자율성과 관계성은 유사한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유능성이 다소 낮은 수준을 보였다. 초등학생들은 학교행복감 중 친구관계에 대한 행복감을 가장 높게 지각하였고, 나머지 교사관계, 환경만족, 학교활동 즐거움은 유사한 수준을 보였지만, 상대적으로 자기효능감 수준이 낮게 보고되었다.

연구모형의 적합도 검증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모형(그림 1. 참고)을 분석한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모형의 적합도 중 $\chi^2=445.706(p<.01)$ 이었고, RMSEA는 .065로 중간 수준의 적합도(Brown & Cudeck, 1993)를 나타내었다.

또한 기타 적합도 지수인 SRMR=.051, TLI=.942, CFI=.952으로 비교적 우수한 적합도를 보였다(Kline, 2010). 이상에서 살펴본 적합도 지수는 앞서 제시한 수용기준에 양호하게 부합하고 있어 본 연구 자료가 모형에 잘 부합된다고 판단되었다.

1) $Z = \frac{abc}{\sqrt{a^2b^2S_c^2 + a^2c^2S_b^2 + b^2c^2S_a^2}}$

표 2. 주요 변인 간 상관계수 및 기술통계치

측정변수		1	2	3	4	5	6	7	8	9	10
정서 표현성	1. 긍정정서표현	1									
	2. 부정정서표현	-.190**	1								
기본 심리욕구	3. 자율성	.385**	-.331**	1							
	4. 유능성	.511**	-.192**	.614**	1						
	5. 관계성	.467**	-.255**	.639**	.700**	1					
학교 행복감	6. 친구관계	.344**	-.239**	.485**	.494**	.654**	1				
	7. 교사관계	.413**	-.190**	.283**	.387**	.390**	.402**	1			
	8. 환경만족	.428**	-.242**	.454**	.599**	.550**	.569**	.606**	1		
	9. 자기효능감	.487**	-.271**	.524**	.739**	.589**	.488**	.491**	.644**	1	
	10. 학습활동 즐거움	.460**	-.302**	.482**	.649**	.576**	.545**	.576**	.770**	.765**	1
평균		86.368	35.448	16.810	14.491	14.823	14.013	15.078	27.930	26.032	27.686
(평균/분향수)		(3.755)	(2.085)	(4.655)	(4.338)	(4.615)	(4.203)	(3.623)	(3.705)	(3.503)	(3.770)
표준편차		14.371	8.495	5.436	5.648	5.106	3.187	3.901	3.509	3.405	3.403

** $p < .01$

표 3. 연구모형 적합도 검증 결과

적합도지수	χ^2	df	CFI	TLI	SRMR	RMSEA (90%신뢰구간)
연구모형	445.706**	174	.952	.942	.051	.065 (.057 ~ .072)

** $p < .01$

변인 간 직접효과 검증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에 따라 정서 표현성,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및 학교행복감 간의 관계 구조를 검증한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모형 내에 포함된 변인 간 직접효과 계수 및 유의도 검증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어머니의 긍정 정서표현은 기본심리욕구인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및 학교행복감에 모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

타났다. 특히 정서표현이 기본심리욕구에 미치는 효과 중 어머니의 긍정 정서표현이 자율성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401, p < .001$). 그러나 어머니의 부정 정서표현이 기본심리욕구에 미치는 영향력은 일관적인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즉, 지각된 어머니의 부정 정서표현은 자율성에는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었으나 ($\beta = -.283, p < .001$), 유능성과 관계성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직접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다음으로 기본심리욕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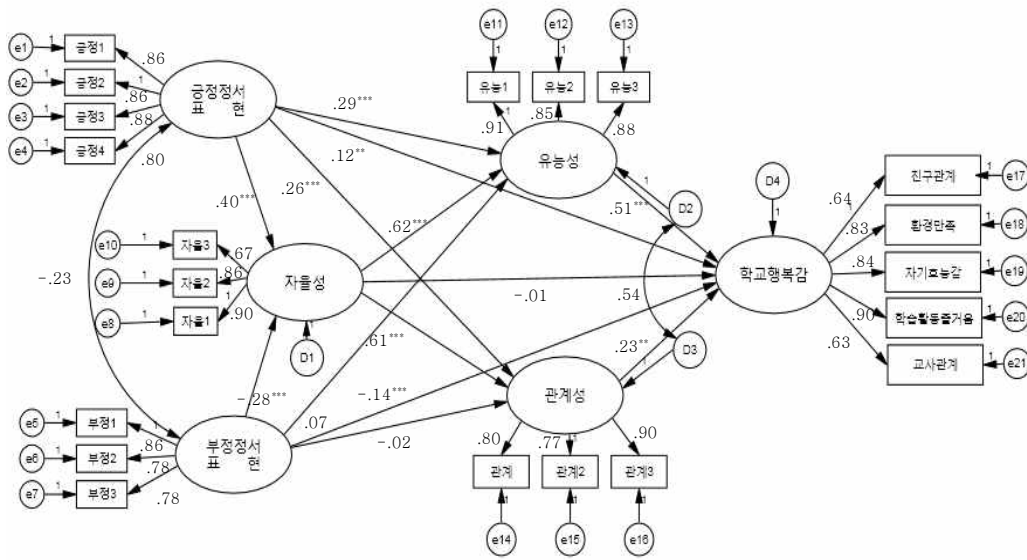


그림 2. 어머니의 정서표현성,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및 학교행복감의 구조적 관계 모형

표 4. 직접효과 검증 결과

	경로	비표준화(B)	표준오차	표준화(β)	t
자율성	← 긍정 정서표현	.192	.026	.401	7.456***
	← 부정 정서표현	-.177	.034	-.283	-5.162***
유능성	← 긍정 정서표현	.139	.023	.290	6.042***
	← 부정 정서표현	.045	.029	.072	1.556
	← 자율성	.617	.055	.617	11.222***
관계성	← 긍정 정서표현	.099	.019	.256	5.088***
	← 부정 정서표현	-.009	.024	-.017	-.358
	← 자율성	.494	.049	.612	10.038***
학교행복감	← 긍정 정서표현	.066	.025	.123	2.619**
	← 부정 정서표현	-.102	.030	-.145	-3.364***
	← 자율성	-.016	.075	-.014	-.216
	← 유능성	.576	.097	.512	5.933***
	← 관계성	.327	.117	.234	2.804**

* $p < .05$, ** $p < .01$, *** $p < .001$

간의 영향을 살펴보면 자율성은 유능성($\beta = .617, p < .001$)과 관계성($\beta = .612, p < .001$)에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기본심리욕구와 학교행복감 간의 경로를 살펴보면 관계성($\beta = .234, p < .01$) 및 유능성($\beta = .512, p < .001$)과는 달리, 자율성에서 학교행복감으로 가는 직접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변인 간 간접효과 검증

지각된 어머니의 정서표현성과 기본심리욕구가 학교행복감에 미치는 총 효과를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로 분해하여 정리한 내용은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긍정 정서표현이 자율성을 매개로 하여서 유능성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247, 관계성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245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1$). 반면 부정 정서표현과 유능성 또는 관계성 사이에서 자율성의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1$). 한편 긍정 정서표현과 부정 정서표현이 각각 학교행복감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387과 -.094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1$). 반면 자율성이 관계성 및 유능성을 통하여 학교행복감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1$). 보다 구체적으로 지각된 어머니의 정서표현성과 학교행복감 사이에서 매개효과 검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기본심리욕구 세 하위요인의 단순 매개효과를 Sobel의 검증을 통해 살펴본 결과, 부정 정서표현과 학교행복감 사이에서는 어떠한 기본심리욕구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매개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긍정 정서표

표 5. 변인 간 효과 분해표

종속변수	독립변수	전체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SMC
자율성	긍정 정서표현	.401	.401***	-	.294
	부정 정서표현	-.283	-.283***	-	
유능성	긍정 정서표현	.538	.290***	.247**	.594
	부정 정서표현	-.103	.072	-.174	
	자율성	.617	.617***	-	
관계성	긍정 정서표현	.501	.256***	.245**	.596
	부정 정서표현	-.190	-.017	-.173	
	자율성	.612	.612***	-	
학교행복감	긍정 정서표현	.510	.123***	.387**	.693
	부정 정서표현	-.238	-.145***	-.094**	
	자율성	.445	-.014	.459	
	유능성	.512	.512***	-	
	관계성	.234	.234***	-	

* $p < .05$, ** $p < .01$, *** $p < .001$

표 6. 이중 매개 효과 검증 결과

경로		계수	SE	Z
긍정 정서표현	유능성	.068	.016	4.278**
	관계성	.031	.012	2.530*
부정 정서표현	유능성	-.063	.017	-3.696**
	관계성	-.029	.012	-2.392*

* $p < .05$, ** $p < .01$

현 → 유능성 → 학교행복감($Z=4.24, p < .01$)과 ‘긍정 정서표현 → 관계성 → 학교행복감($Z= 2.46, p < .05$)’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자율성은 유의한 매개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한편 연구 모형 내에서 기본심리욕구의 세 개 구인은 서로 위계적인 구성을 통하여 정서표현성과 학교행복감 사이에서 이중적인 매개효과(double mediation effect)를 보이고 있다. 이를 검증한 결과는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앞서 제시된 단일 매개효과의 경우는 긍정 정서표현성과 학교행복감 사이에서 유능성과 관계성만이 유의한 효과를 보인 반면, 이중 매개효과의 경우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1$). 즉, 긍정 정서표현과 부정 정서표현이 자율성과 유능성 또는 관계성을 거쳐서 학교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한편 모형에 포함된 외생변수들이 내생변수

를 설명하는 양을 나타내는 다중 상관치(SMC) 값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5. 참고). 지각된 어머니의 정서표현성이 자율성을 약 29.4%, 어머니의 정서표현성 및 자율성이 유능성과 관계성을 각각 약 59.4%와 약 59.6% 정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내 포함된 어머니의 정서표현성과 기본심리욕구 구인들은 초등학생의 학교행복감의 전체 분산을 약 69.3% 정도 설명하고 있어서, 이들 변인들은 학교행복감에 대해서 비교적 높은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각된 어머니의 정서표현성 프로파일에 따른 기본심리욕구 및 학교행복감 차이

지각된 어머니의 정서표현성은 몇 개의 하위 군집이 존재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2단계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실시한 결과, 표 7에

표 7. 군집분석 결과

군집	n(%)	지각된 어머니의 정서표현성	
		긍정 z점수(수준)	부정 z점수(수준)
1	70(18.77)	-.21(평균)	1.50(매우 높은)
2	125(33.51)	-.86(매우 낮은)	.03(평균)
3	80(21.45)	.97(매우 높은)	.10(평균)
4	98(26.27)	.46(높은)	-1.18(매우 낮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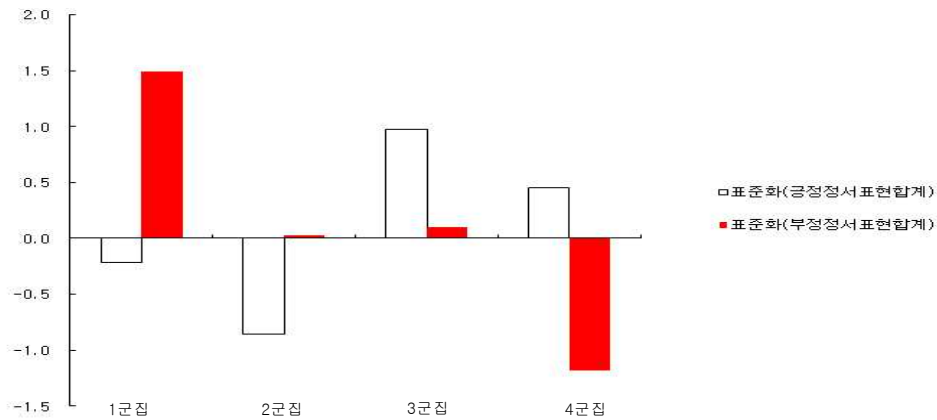


그림 3. 지각된 어머니의 정서표현성 프로파일 유형

서 보는 바와 같이 4개의 군집이 도출되었다. 이를 그래프로 제시하면 그림 3과 같다.

각 프로파일의 특성을 기술하기 위한 준거로써, 선행연구(신이나, 손원숙, 2012)의 해석 기준을 사용하였다. 즉, Z점수 상에서 평균 0을 기준으로 ± 0.25 까지는 ‘평균’ 수준, ± 0.25 부터 ± 0.75 까지는 ‘높은 또는 낮은’ 수준, ± 0.75 밖 범위는 ‘매우 높은 혹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해석하였다. 그림 3에서 제시된 프로파일 유형을 참고해 볼 때, 첫 번째 군집은 전체 약 18.77%를 차지하며, 가장 작은 군집 크기를 보이고 있고, 평균적인 수준의 긍정 정서표현은 하고 있지만, 부정 정서표현이 매우 높은 집단이다. 전체 약 33.51%로 가장 큰 군집을 이루고 있는 군집2는 긍정 정서표현은 매우 낮게 지각되며, 평균적인 수준의 부정 정서표현을 하는 집단이다. 반면 세 번째 군집은 전체 21.45%를 차지하며, 긍정 정서표현을 매우 빈번히 하면서, 평균적인 수준의 부정 정서표현도 하는 특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군집은 4개의 군집 중 2번째로 큰 크기(약 26.27%)를 나타내며, 긍정적인 정서표현

은 높은 수준이면서, 부정적인 정서표현을 매우 낮게 지각한 집단이다. 어머니의 정서표현의 방향성을 고려하자면, 군집1은 부정적인 정서표현이 매우 높고, 군집3은 긍정적인 정서표현이 매우 높은 집단으로 구분될 수 있다. 한편 군집2의 경우는 긍정적인 정서표현도 매우 낮을 뿐 아니라 부정적인 정서표현도 평균적인 수준에 불과한 경우로써 어머니가 자녀에게 표현하는 정서의 양이 상대적으로 작은 군집으로 유형화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군집3의 경우는 긍정 및 부정적인 정서표현이 모두 평균 이상으로 어머니의 정서표현의 정도가 가장 높게 지각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어머니의 정서표현성 군집 유형에 따른 자녀의 기본심리욕구 및 학교행복감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군집 3과 4에서 세 가지 유형의 기본심리욕구 및 학교행복감이 군집 1과 2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8. 참고). 반면 군집 3과 4, 군집 1과 2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지각된 어머니의 긍정 정서표현이 매우 높거나, 혹은 부정 정서표현이

표 8. 어머니의 정서표현성 군집 유형에 따른 기본심리욕구 및 학교행복감 차이 분석

	군집 유형				<i>F(df)</i>	<i>Scheffé</i> 사후검증
	군집1	군집2	군집3	군집4		
자율성	25.13 (5.72)	26.42 (4.86)	29.55 (5.01)	30.54 (4.67)	22.720 ^{***} (3)	4, 3 > 2, 1
유능성	24.44 (5.70)	23.75 (5.16)	28.31 (5.20)	28.21 (5.05)	20.701 ^{***} (3)	3, 4 > 1, 2
관계성	26.26 (5.12)	25.46 (4.55)	29.84 (4.43)	29.80 (4.77)	23.772 ^{***} (3)	3, 4 > 1, 2
학교행복감	69.87 (13.94)	68.53 (12.55)	80.50 (13.15)	83.24 (11.37)	33.564 ^{***} (3)	4, 3 > 1, 2

^{***}*p*<.001

매우 낮은 군집에 속한 학생들의 기본심리욕구 및 학교행복감 수준이 부정 정서표현이 매우 높거나, 긍정 정서표현이 매우 낮은 군집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다.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정서표현성, 기본심리욕구 및 학교행복감 간의 관계를 검증하는 것으로 이를 위하여 크게 두 가지의 방법론이 적용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어머니의 정서표현성은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의 정서표현 정도를 보고 하도록 하였으며, 어머니의 정서표현을 부정 또는 긍정으로 양분하여서 기본심리욕구 및 학교행복감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또한 기본심리욕구의 하위요인인 자율성, 관계성 및 유능성을 위계적으로 구성하여 학교행복감에 미치는 개별적인 영향력뿐 아니라, 기본심리욕구 간 상호 영향력도 함께 검토하고자 하였다.

추가적으로 군집분석에 의하여 어머니의 정서표현성 유형을 구분하고 이에 따른 기본심리욕구 및 학교행복감의 차이를 탐색함으로써, 세 변인 간의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생들이 어머니로부터 긍정적인 정서를 많이 지각할수록, 자율성, 유능성 및 관계성에 대한 기본심리욕구가 충족되는 경향이 있었고, 학교행복감도 높게 느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어머니가 부정적인 정서표현을 많이 한다고 지각할수록, 기본심리욕구 및 학교행복감은 낮은 경향이 파악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어머니의 이분화된 정서표현성이 초등학생의 학교 적응에 정적 또는 부적으로 관련이 있으며(Haskett, Stelter, Proffit, & Nice, 2012), 기본심리욕구와 심리적 안녕과는 정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이진호, 양명환, 2012)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조모형에서 변

인간의 직접적인 효과를 살펴보면, 초등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긍정 정서표현성은 기본심리욕구인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및 학교행복감에 모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들은 어머니의 긍정적인 정서표현을 많이 지각할수록, 전반적인 자존감이 높아지고, 사회적 관계 속에서 유능감 및 관계성이 향상되어 학교에서 더 행복하게 느낌을 알 수 있다. 반면 어머니의 부정 정서표현성이 자율성 및 학교행복감에 미치는 효과는 부적으로 유의한 반면, 부정 정서표현성이 초등학생의 유능성 및 관계성에 미치는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한편 기본심리욕구가 학교행복감에 미치는 직접 효과를 살펴보면, 유능성과 관계성이 높을수록 학교행복감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다 반면, 자율성은 학교행복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다. 친구 및 교사 관계에서 오는 행복감이 학교행복감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집단주의 문화의 경우 기본적으로 관련성을 소중한 미덕으로 여기며 다른 사람과의 조화로운 상호의존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Markus & Kitayama, 1991). 더불어서 학교행복감 정의 안에는 스스로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 및 효능감을 갖고 있는 경우로도 정의된다(김종백, 김태은, 2008)는 측면에서 관계성과 유능성이 학교행복감에 미치는 정적인 직접 효과는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자율성의 욕구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개념으로써 본 연구대상이 초등학생이라는 점에서 자율성이 학교행복감에 유의한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으며(김은주, 2007; Deci & Ryan, 2000), 이러한 결과는 또한 일부 국내 연구들과는(김아영, 이명희, 2008;

한소영, 신희천, 2009) 일관된 양상이다. 하지만 국외 연구결과(Deci et al., 2006; Ryan, 2005)와는 다소 차이를 갖는데, 이는 개인주의와 독립성이 강조되는 서구 문화에서 갖는 자율성의 의미가 우리 문화에서와 다르게 해석되는 '문화적 차이'로써도 설명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우리나라 초등학생의 자율성은 학교행복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보다는 유능성과 관계성을 만족시키기 위한 일종의 전제조건으로서의 역할을 함으로써, 학교행복감에 간접적인 효과만을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어머니의 정서표현성과 학교행복감 간의 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긍정 정서표현과 학교행복감의 관계에서 유능성과 관계성의 단순매개효과는 유의하였으나 자율성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어머니와 자녀관계가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연구(한소영, 신희천, 2009)에서 자율성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개인주의 보다는 집단주의 문화 환경을 중시하는 풍토에서는 자율성이란 의미가 서구문화에서 설명되는 의미와는 다른 방임 또는 무관심으로 해석되었을 가능성도 고려해 볼 수 있다(Markus & Kitayama, 1991).

한편 긍정 정서표현이 자율성을 통하여 유능성 또는 관계성을 매개한 뒤, 학교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이중매개효과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이 느끼는 학교행복감에는 단순히 자율성만이 영향을 준다고 보다는, 타인과의 의미 있는 관계나 유능성 욕구를 충족시킴으로 인하여 그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김은주(2007)와 이수진(2011)의 연구결과

와 유사한 결과이다. 즉, 어머니로부터 지각된 긍정적인 정서표현은 자녀의 자율성을 높이고, 이로 인하여 관계성 또는 유능성이 높아짐으로써 학교행복감 수준을 높게 지각하는 경향이 파악되었다. 반면 부정 정서표현의 경우에는 기본심리욕구 개별 하위요인의 매개효과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자율성과 유능성' 또는 '자율성과 관계성' 등을 매개하여 학교행복감에 미치는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파악되었다. 선행연구에서 보고한 것과 마찬가지로 부정 정서표현은 학교행복감과 같은 긍정적인 요인보다는 아동의 내재화, 외현화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Bronstein et al, 1993; Stocker, Richmond, & Rhoades, 2007).

본 모형에 포함된 변인 간의 관련성을 요약하자면, 자녀에게 지각된 어머니의 긍정적인 정서표현은 직, 간접적으로 자녀의 학교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긍정 정서표현이 학교행복감에 미치는 전체 효과 대비 직, 간접효과의 비율을 비교해 보았을 때,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이라는 기본심리욕구를 통한 간접적인 효과는 약 76%, 직접효과는 약 24%로써, 지각된 어머니의 긍정 정서표현은 자율성을 전제로 한 기본심리욕구의 충족을 통하여 학교행복감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상대적으로 큼을 알 수 있다. 반면 초등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부정적인 정서표현은 학교행복감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약 61%)가 기본심리욕구를 통한 간접효과(약 39%) 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이중매개효과를 통하여, 어머니의 갖은 부정적인 정서표현이 자녀의 자율성 욕구를 만족시키지 못함으로 인하여, 나머지 유능성과 관계성 등의 수준을 낮추고,

결과적으로 학교행복감은 낮게 지각됨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부정적인 정서표현이 자녀의 기본심리욕구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작거나 유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정서표현성과 학교행복감 사이에서의 기본심리욕구의 매개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에서 파악된 특징적인 결과 중 하나는 어머니의 긍정 또는 부정적인 정서표현은 모두 기본심리욕구 중 자율성이라는 욕구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이러한 자율성은 학교행복감에 미치는 직접 효과를 갖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신 이러한 자율성은 유능성과 관계성을 매개하여서 학교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자율성이 확보되어야 유능성과 관계성의 욕구가 충족된다는 선행 연구(김은주, 2007; 전성희, 신미, 유미숙, 2011; Deci & Ryan, 2002)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즉, 가정에서 어머니로부터 지각된 정서표현성은 기본심리욕구 중 자율성과 가장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으며, 자율성 욕구의 충족을 통하여 유능성 및 관계성이 만족되고, 이는 학교행복감을 높일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구조 모형 검증을 통하여 어머니의 긍정 정서표현이 갖는 긍정적인 효과는 확인되었으나, 부정적인 정서표현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다소 비 일관적인 결과를 얻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어머니의 부정적인 정서표현성이 자율성이나 학교행복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부정적이었으나, 관계성 및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어머니가 부정 정서표현을 통한 훈육과 통제를 하는 것이 아동의 자율성을 저해한다는 연구결과(송하나, 최경숙, 2006)와는 일치하나, 부정 정

서표현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연구결과(오영희, 우수경, 김화자, 2006)와는 다소 차이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표현의 균형을 강조한 Bradburn(1969)의 연구나 본 연구에서 실시한 정서표현성에 대한 프로파일 분석 결과로부터 부분적으로 설명이 보완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정서표현에 대한 프로파일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변인 간 상관분석 및 구조모형 분석 결과와 일관되게, 어머니로부터 부정적인 정서표현을 매우 높게 지각한 집단(군집 1) 보다는 매우 낮게 지각한 집단(군집 4)에서 기본심리욕구 및 학교행복감 수준이 높다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반면 부정적인 정서표현이 평균적인 수준이더라도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정서표현이 매우 낮게 된다면 즉, 어머니로부터 어떤 형태이든지 정서표현이 작게 지각된 집단(군집 2)의 경우에는 기본심리욕구 충족 및 학교행복감 수준이 낮았다. 하지만 부정적인 정서표현을 평균적인 수준에서 하더라도 긍정적인 정서표현이 매우 높게 된다면 즉, 어머니가 많은 정서표현을 하는 집단(군집 3)의 경우는 매우 적응적인 심리적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하여 어머니의 부정 정서표현이 단순히 부정적인 효과만을 갖기 보다는 빈번한 긍정적인 정서표현과 함께 어머니의 적절한 수준의 부정적인 정서표현은 자녀의 기본심리욕구 및 학교행복감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잠정적인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한편 유아를 대상으로 부모의 정서표현성을 연구한 기존 선행연구(이진희 외, 2012; 유은희, 임미옥, 2006; Denham, 2006)를 살펴볼 때, 부모들이 자녀에게 긍정 또는 부정 등 다양한 정서표현을 제

공함으로써 실제 일어나고 있는 상황 및 원인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이는 유아 및 아동의 정서 이해 및 표현 뿐 아니라 학습 및 언어발달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고 논의하고 있다. 또한 부모가 보여주는 정서표현은 그 표현의 방향뿐 아니라 빈도, 그리고 해당 상황에 얼마나 적절한 정서표현을 하였느냐는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하는 특성으로써, 추후 어머니의 정서표현에 대한 보다 다각적인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제안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어머니의 정서표현성의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 이외에 정서표현의 적절성 및 아버지를 포함한 의미 있는 타인들이 보여주는 다각적인 정서표현성의 정보를 수집하여서, 초등학생들의 기본심리욕구 및 학교행복감 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서는 방법론적으로 정서표현성 측면에서 이질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하위집단을 구분하고, 이들 간의 특성을 탐색하기 위한 군집분석이나 잠재계층모형(latent class models)과 같은 개인-중심적(person-centered) 연구 설계가 유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의 학교행복감을 이해하기 위하여 어머니 및 본인의 심리적 특성의 영향력만을 제한적으로 검토하였다. 하지만 학교행복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교사나 학교 변인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한 추후 연구 방향도 모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명소, 김혜원, 한영석, 임지영 (2003). 한국인

- 의 행복한 삶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 별 분석. *한국심리학회*, 22(2), 1-33.
- 김수진, 박지현, 김현경, 진의남, 이명진, 김지영, 안윤경, 서지희 (2012). 수학, 과학 성취도 추이변화 국제비교 연구: TMSS 2011 결과보고서(RRE 2012-4-3),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김아영, 이명희 (2008). 청소년의 심리적 욕구 만족, 우울 경향, 학교 생활적응간의 관계 구조와 학교급간 차이. *교육심리연구*, 22(2), 423-441.
- 김아영, 이명희, 전해원, 이다솜, 임인혜 (2007). 청소년이 지각하는 유능성 및 관계성과 비행 간의 종단적 관계분석. *교육심리연구*, 21(4), 745-967.
- 김은주 (2007). 부모 자녀 관계와 자기결정성 요인들이 대학 신입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교육심리연구*, 21(3), 539-555.
- 김종백, 김태은 (2008). 학교행복검사도구 개발 및 타당화. *교육심리연구*, 22(1), 259-279.
- 박영신, 김의철, 한기혜, 박선영 (2012). 청소년이 지각한 행복의 수준과 요인: 가정, 학교, 여가생활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9(9), 149-188.
- 송영명 (2011). 특목고 학생의 부모-자녀관계, 자아탄력성, 학업적 유능감이 학교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교육심리연구*, 25(3), 647-669
- 송정화, 박병기, 임신일 (2012). 다층모형을 적용한 주관적 안녕의 설명요인 탐색. *교육심리연구*, 26(1), 139-176.
- 송하나, 최경숙 (2006). 모자 상호작용에서 정서표현성이 아동의 사회 능력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 44(11), 51-65.
- 신이나, 손원숙 (2012). 영재와 일반 중학생의 성취목표지향성 프로파일 분석: 개인-중심적 접근의 활용. *한국심리학회: 학교*, 9(1), 65-19.
- 오영희, 우수경, 김화자 (2006). 어머니의 정서표현성 및 언어통제 유형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 *유아교육학논집*, 10(1), 149-165.
- 유은희, 임미옥 (2006). 부모의 정서표현성과 아동의 자기조절 능력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7(6), 97-106
- 이수진 (2011). 지각된 자율성, 관계성, 유능성과 대학생활에서의 학업성취, 정서적 적응과 주관적 안녕감과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25(4), 903-926.
- 이정화 (2005). 초등학생의 행복감 측정을 위한 도구의 개발. 석사학위논문, 공주교육대학교.
- 이진호, 양명환 (2012). 운동선수가 지각한 사회적 환경요인과 심리적 웰빙의 관계에서 기본적 심리욕구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23(1), 59-75
- 이진희, 이옥경, 손원숙 (2012). 어머니 정서표현성의 요인탐색과 유아의 어휘력 발달의 관계. *육아지원연구*, 7(2), 5-26.
- 전성희, 신 미, 유미숙 (2011). 청소년의자기 결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한국청소년학회*, 19(1), 275-296.
- 조한익 (2011). 초등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지지, 희망, 우울증 및 학업성취도의 구조적 관계분석. *교육심리연구*, 25(1), 153-174.
- 한소영, 신희천 (2009).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자녀 관계에서의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감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

- 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2), 439-464.
- Aderson, R., Manoogian, S. T., & Reznick, J. S. (1976). The undermining and enhancing of intrinsic motivation in preschool childre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4*, 915-922.
- Ainley, J. (1991). High school factors that influence students to remain in school.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85*, 69-80.
- Baumeister, R. F., & Leary, M. L. (1995). The need to belong: Desire for interpersonal attachment as a fundamental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17*, 495-529.
- Bradburn, N. M. (1969).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Chicago: Aldine.
- Brody, L. R. (1993). On understanding gender differences in the expression of emotion. In human feelings: Explorations in Affect Development and Meaning, ed. Steven L. Ablon, Daniel Brown, Edward J. Khantzian, and John E. Mack, 87-121. Hillsdale, N. J.: Analytic Press.
- Bronstein, P., Fitzgerald, M., Briones, M., Pieniadz, J., & D'Ari, D. (1993). Family emotional expressiveness as a predictor of early adolescent social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Th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November, 13*, 448-471.
- Browne,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Campbell, A. (1981). The Sense of Well-being in America: Recent Patterns and Trends. New York: McGraw-Hill.
- Cassidy, J., Parke, R., Butkovsky, L., & Braungart, J. (1992). Family-peer connections: The roles of emotional expressiveness within the family and children' understanding of emotions. *Child Development, 63*, 603-18.
- Chen, X., & Li, B. (2000). Depressed mood in Chinese children; Relation with school performance and family environment.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3*, 938-947.
- Cheng, H., & Furnham, A. (2001). Attributional Style and Personality as Predictors of Happiness and Mental Health.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2*(3), 307-327.
- Deci, E. L., & Ryan, R. M. (1985). Intrinsic motivation and self-determination in human behavior. New York; Plenum Press.
- Deci, E. L., & Ryan, R. M. (2000). The "What" and "Why" of goal pursuits: Human needs and the self-determination of behavior. *Psychological Inquiry, 11*, 227-268.
- Deci, E. L., Vallerand, R. J., Pelletier, L. G., & Ryan, R. M. (1991). Motivation and education: The self determination perspective. *Educational Psychologist, 26*, 325-346.
- Denham, S. A. (1998). Emotional Development in Young Children. New York: Guilford Press.
- Denham, S. A. (2006). The emotional basis of learning and development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In B. Spodek & W. N. Saracho(Eds.), Handbook of research on the education of young children(2nd ed., 85-103). Mahwah, NJ: Lawrence Erlbaum.
-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 542-575.
- Diener, E., Suh, E., Lucas, R., & Smith, H. (1999). Subjective Well-being; Three Decades

- of Progress, *Psychological Bulletin*, 125, 276-302.
- Domagała-Zyśk, E. (2006). The significance of adolescents' relationships with significant others and school failure. *School Psychology International*, 27, 232-247.
- Entwisle, D. R., & Hayduk, L. A. (1988). Lasting effects of elementary school. *Sociology of Education*, 61, 147-159.
- Francis, L., Brown, L., Lester, D., & Philipchalk, R. (1998). Happiness is stable extravers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4, 167-71.
- Gottfried, A. E., Fleming, J. S., & Gottfried, A. W. (1994). Role of parental motivational practices in children's academic intrinsic motivation and achievemen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6, 104-113.
- Hair, J. F., & Black, W. C. (2000). Cluster analysis. In L. G. Grim & P. R. Yarnold (Eds.), *Reading and understanding more multivariate statistics*, 147-205. Washington, DC: Psychological Association.
- Halberstadt, A. G. (1991). Socialization of expressiveness; Family in fluence in particular and a model in general, In R. S. Feldman & BRime(Eds.), *Fundamentals in nonverbal behavior*(pp.106-160),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alberstadt, A. G., Cassidy, J., Stifter, C., Parke, R., & Fox, N. (1995). Self-expressiveness within the family context: Psychometric support for a new measure. *Psychological Assessment*, 7, 93-03.
- Haskett, M. E., Stelter, R., Proffit, K., & Nice, R. (2012). Parent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children's self-regulation: Associations with abused children's school functioning. *Child Abuse & Neglect*, 36(4), 296-307.
- Hills, P., & Argyle, M. (2001). Emotional stability as a major dimension of happines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1, 1357-1364.
- Kline, R. B. (2010). *Principle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ew York; Guilford press.
- Laible, D., & Song, J. (2006). Constructing emotional and relational understanding: The role of affect and mother-child discourse. *Merrill-Palmer Quarterly*, 52(1), 44-69.
- Markus, H. R.,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2), 224-253.
- Mcknight, C., Huebner, E. S., & Suldo, S. M. (2002). Relationships among stressful life events, temperament, problem behavior, and global life satisfaction in adolescents. *Psychol. Sci*, 39, 677-687.
- Nelson, J. A., O'Brien, M., Calkins, S. D., Leerkes, E. M., Marcovitch, S., & Blankson, A. N. (2012). Maternal expressive style and children's emotional development,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21, 267-286.
- Osterman, K. F. (2000). Students' need for belonging in the school community.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70, 323-367.
- Patrick, H., Knee, C. R., Canevello, A., & Lonsbary, C. (2007). The role of need fulfillment in relationship functioning and well-being: A self-determination theory

- perspectiv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2, 434-457.
- Patterson, G. R. (1980). Mothers: The unacknowledged victims.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45(5), 1-64.
- Preacher, K. J., & Hayes, A. F. (2004). SPSS and SAS procedures for estimating indirect effects in simple mediation models. *Behavior Research Methods, Instruments, & Computers*, 36(4), 717-731.
- Roth, G., Assor, A., Niemiec, C. P., Deci, E. L., Ryan, R. M. (2009). The Emotional and Academic Consequences of Parental Conditional Regard: Comparing Conditional Positive Regard, Conditional Negative Regard, and Autonomy Support as Parenting Practices. *Developmental Psychology*, 45(4), 1119-1142.
- Ryan, R. M. (2005). The developmental line of autonomy in the etiology, dynamics, and treatment of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7, 987-1006.
- Ryan, R. M., & Connell, J. P. (1989). Perceived locus of causality and internalization: Examining reasons for acting in two domai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5), 749-761.
- Ryan, R. M., & Deci, E. L. (2000).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the facilitation of intrinsic motivation, social development, and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55(1), 68-78.
- Reyes, O. & Jason, L. A. (1993). Pilot study examining factors associated with academic success for Hispanic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2, 57-71.
- Saarni, C. (1999). The development of emotional competence.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Spera, C. (2005). A review of the relationship among parenting practices, parenting styles, and adolescent school achievement. *Educational Psychology Review*, 17, 125-146.
- Stocker, C. M., Richmond, M. K., & Rhoades, G. K. (2007). Family emotional processes and adolescents' adjustment. *Social Development*, 16(2), 310-325.
- Suldo, S. M., & Huebner, E. S. (2004). Does life satisfaction moderate the effects of stressful life events on psychological behaviors during adolescence?. *Sch. Psycho. Quart*, 19, 93-105.
- Uusitalo-Malmivaara, L. (2012). Global and School-Related Happiness in Finnish Children.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3(4), 601-619.
- Vallerand, R. J., Fortier, M. S., & Guay, F. (1997). Self-determination and persistence in a real-life setting: Toward a motivational model of high school dropou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5), 1161-1176.
- Vallerand, R. J., Pelletier, L. G., Blais, M. R., Briere, N. M., Senecal, C., & Vallieres, E. F. (1992). The academic motivation scale: A measure of intrinsic, extrinsic, and amotivation in education.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52, 1003-1017.
- Veenhoven, R., & Ehrhardt, J. (1995). The cross-national pattern of happiness: Test of predictions implied in three theories of happiness. *Social Indicators Research*, 34, 33-68.
- Verkuyten, M., & Thijs, J. (2002). School satisfaction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 Role of performance, peer relations, ethnicity

and gender. *Social Indicators Research*, 59(2),
203-228.

원 고 접 수 일 : 2013. 01. 31.

수정원고접수일 : 2013. 04. 18.

최종게재결정일 : 2013. 04. 22.

Relationships of Perceived Maternal Emotional Expressiveness with Basic Psychological Needs and School Happiness for Korean Elementary Schoolers

Shinbok Yu

Wonsook Soh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perceived maternal emotional expressiveness, basic psychological needs, and school happiness. Specifically, we examined the mediating effects of the basic psychological needs between perceived maternal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school happiness. Also we identified the sub-groups by a cluster analysis of maternal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then explored their differences in basic psychological needs and school happiness.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373 students sampled from eight elementary schools located in D city and K province. We hypothesized a structural model in that perceived maternal emotional expressiveness influences elementary school students' autonomy, and autonomy has a positive impact on their competence, or relatedness and in turn, these three basic psychological needs influence their school happiness. The results showed that maternal positive emotional expressiveness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s on school happiness in either direct or indirect ways, while maternal negative emotional expressiveness had only significant indirect effects on school happiness in terms of students' basic psychological needs. On the other hand, the results from a cluster analysis suggested that maternal negative emotional expressiveness can also play a positive role for the child's psychological needs and happiness. The results revealed that maternal expressiveness can contribute to their child's basic psychological needs and school happiness. Finally, it was discussed that future work with the person-oriented perspective is needed for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parent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its effects on other psychological traits.

Key words : *perceived maternal emotional expressiveness, autonomy, competence, relatedness, school happiness.*